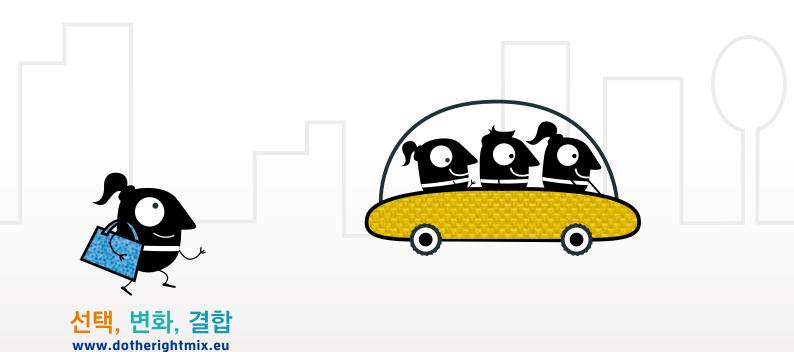


2015 유럽교통주간 (9.16~22)

올해의 주제 -다양한 이동수단의 결합 (Multimodality)



이클레이 한국사무소(www.icleikorea.org)는 2015 유럽교통주간의 한국 코디네이터로, 국내 지방정부의 교통주간 등록 및 '2015 친환경 교통주간 (9.16~22)'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주최, 유럽교통주간 연계 시행)을 위한 각 지방정부 활동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입

유럽교통주간 (European Mobility Week)은 매년 지속가능한 교통 (sustainable mobility)과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주제를 '올해의 주제'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참가도시는 이 주제를 토대로 캠페인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유럽교통주간 동안 최소 한 개는 실행하도록 하고 하는 '항구적 대안' 역시 이 주제를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유럽교통주간 캠페인의 2015년 주제는 '다양한 이동수단의 결합 (Multimodality)'이며, 이를 위해 '선택, 변화, 결합 (Choose, Change, Combine)'을 구호로 하고 있다. 올해의 주제는 이동수단을 혼합하여 도시민들이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가져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자전거, 걷기, 대중교통, 그리고 이들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더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을 선택함으로써 생활 습관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더 깨끗하고 더 조용하고 더 안전하고 덜 혼잡하여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갈 것을 목표로 한다.

선택, 변화, 결합 (CHOOSE. CHANGE. COMBINE)

2015 유럽교통주간 주제: 다양한 이동수단의 결합 (Multimodality)

이동을 할 때 우리는 한 가지 교통수단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지나치다. 자전거나 대중교통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상황에서조차 우리는 손쉽게 자가용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올해의 주제인 '다양한 이동수단의 결합 (Multimodality)'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 가장 올바른 교통수단을 선택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동수단 간 결합은 더 빠르고 더 즐거운 여정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해 현명한 선택을 내리면 우리는 돈을 절약할 수 있고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환경을 지킬 수도 있다. 우리는 단지 새로운 것을 한번 시도해보기만 하면 된다.

다양한 이동수단의 결합, 왜 필요한가

높은 주차료를 내면서 도심으로 승용차를 몰고 들어가기보다는 기차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도착 지까지 줄곧 지하철을 타고 땅밑을 지나가는 대신 몇 정거장 일찍 내려 안 가본 거리를 탐험해보라. 장차 단골이 될 카페를 우연히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새로운 이동 방식을 시도하여 우리의 도시를 새롭게 경험하라.

과거의 주제들과 달리 올해의 주제는 특히 교통, 혹은 한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의 이동을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으로 재해석하게 한다. 매일 버스 통근 시간을 이용해 신문기사를 읽을 수도 있다. 자전거는 움직이는 체육관이 될 수도 있다. 움직이면서 운동을 할 수 있다. 전차에서 평생의 짝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선택을 내리고 바꾸고 결합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매 여정을 이끌어 갈 수 있다.



이동수단 간 결합 증진 방안

이동수단 간 결합을 증진함으로써 도시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정책은 셀 수 없이 많다. 모든 도시에 들어맞는 단 하나의 정답 따위는 없으며, 각 도시는 지역적 여건에 잘 들어맞는 결합 방식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 중심의 대책들'을 홍보 활동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동수단 간 결합 증진 방안 예

1) 모든 교통 수단을 고려한 높은 수준의 기반시설

유럽 도시는 일반적으로 자가용을 위한 인프라는 잘 갖추고 있다. 그러나 걷기, 자전거 및 대중교통을 위한 수준급 인프라는 부족하다. 모든 교통수단을 고려한 높은 수준의 인프라는 서로 다른 이동수단의 결합이 기반이 된 새로운 생활방식을 유도하기 위한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걷기: 방향, 거리, 소요시간 등을 나타내는 도보자를 위한 표지판과 지도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안에 해당한다.

자전거: 몇몇 유럽 도시들에서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별도로 확보된 높은 수준의 자전거 도로가 마련돼 있다. 이는 직장까지 바로 연결되는 빠른 속도의 장거리 통근을 가능케 한다. 대중교통: 버스, 전차, 지하철 등을 연결하기 위한 건설 및 계획 작업과 같은 장기적 사업 외에도, 부다페스트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요금 수집 자동화 제도와 같이 작은 규모의 대책들도 대중교통 체계의 획기적 개선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2) 시민들이 서로 다른 교통수단의 결합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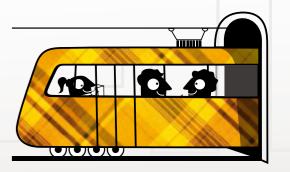
건기와 자전거 타기를 대중교통과 결합하는 것은 장거리 이동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해법이다. 시민들이 이를 실제로 구현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버스, 전차, 지하철, 기차 등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도록 한다. 출발지/목적지와 대중교통 이용 시작 지점 사이에 안전하면서도 매력적인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큰 변화를 불러온다. 적절한 장소에 주차장을 만들어 전체 이동 구간 중 적어도 한 구간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 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

- 3) 관련 정책 도구(Tool) 사용
- -실시간 정보 제공 도구. 용도: 교통수단 간 결합을 용이하게 함
- -플래너 (planner). 용도: 교통수단 간 결합을 통해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계획 수립 지원
- -통합교통권 (multimodal integrated ticketing)









캠페인 착수 안내

먼저 올해의 주제를 분석하라. 부수과제는 무엇인지, 해당 도시와 국가적 맥락에 가장 잘 들어맞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연구하라. 공감을 이끌어내라. 친환경적이고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경제적인 유인책을 선택하라. 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취약한 사회계층을 들여다보고, 이 이슈가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도 있다. 이상을 토대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 계획을 확정하고 똑똑한(SMART) 목표들을 수립하라.

- -필요하면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라
-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 정치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
- -이동수단 간 결합과 관련이 있는 정보와 통계 등 증거를 수집하라
- -캠페인 성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파트너가 누구인지를 분석하고 이들과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구축 하라
- -캠페인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는 기존 계획/사업을 십분 활용하라.

교통주간 활동 예

캠페인 전략이 수립되고 나면 캠페인에 관심을 끌어올 수 있는 전략과 활동을 준비해야 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차 없는 날을 실시하고, 이날 대중교통과 공공자전거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교통수단 간 결합이라는 해법을 사람들이 직접 실험해볼 수 있도록 한다.
- -서로 다른 교통수단을 결합하고 더 자주 걷고 자전거를 탈 것을 장려하기 위해 직장과 동네, 학교 간 경연을 조직한다.
- -참여적 표지판 만들기 시스템을 임시 도입하라. 특정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거리를 통근자들이 표지판에 직접 기입하게 한다.
- -지역 상점주들을 참여시키고, 이들과 함께 유럽교통주간 동안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부상을 수여한다.

(이상 교통주간 캠페인 전략 및 활동 사례를 위한 더 풍부한 정보는 '유럽교통주간 안내서 (European Mobility Week Handbook)' 참조)

* 이 자료는 다음 문서를 발췌 번역한 것입니다.

EUROPEAN MOBILITY WEEK THEMATIC GUIDELINES 2015 (출처: www.mobilityweek.eu/resources)









